



전선혜 교수의

국가직 9급 해설 - 처 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1. 정답 1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① 백 원씩 쳐주마.

→ '샘을 맞추어 주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쳐주다'이므로 '쳐주마'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몸이 축축 쳐지네.

→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쳐지다'이므로 맞다.

③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쳐대다'이므로 맞다.

④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 '마구 쏘서 넣어지거나 폭 밀어 넣어지다'의 의미로 '쳐박히다'가 쓰이므로 맞다.

2. 정답 4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보조용언은 자립성이 없으며,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되지 않는 용언이므로 해석을 통해 가려볼 수 있다.

④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 이 문장에서 '보인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므로 본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 날이 밝아 온다

→ 여기서 '온다'가 위치를 옮긴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화자 또는 화자가 정하는 기준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쓰였다.

② 과자를 먹어 버렸다.

→ 이 문장의 '버리다'는 필요 없는 물건을 던지거나 쏟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

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다.

③ 편지를 부쳐 주었다.

→ 이 문장의 '주었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쓰였다.

3. 정답 2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② 상하 관계

사고: 생각하고 공리함.

비판: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오답 해설>

① 반의 관계

분분하다: 소문,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합치하다: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맞아 일치하다.

③ 반의 관계

검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오만: 건방지거나 거만한 태도.

④ 반의 관계

결미(結尾): 글이나 문서의 끝부분.

모두(冒頭): 말이나 글의 첫머리.

4. 정답 4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오답 해설>

① 좌고우면(左顧右睞): 앞뒤를 재고 망설임.

②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전선혜 교수의

국가직 9급 해설 - 처 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5. 정답 2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② 눈비: 바위 동굴에서 눈비를 맞는다는 것은 벼슬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형편을 나타내는 말이다.

6. 정답 1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모두 어근으로만 구성된 합성어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오답 해설>

② '면도/칼, 서릿/발'은 합성어이며, '썬/둥이, 장난/기'는 파생어이다. '-둥이'는 '그려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며, '-기'는 '기운', '느낌', '성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③ '깍두기'는 단일어, '선생/님, 핫/바지'는 파생어, '작은/형'은 분석하는 입장에 따라 '작은-'을 '작다'의 활용형으로 보면 합성어이고, 접사로 보면 파생어이다. '핫-'은 '숨을 쫓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④ '김치/찌개, 돌/다리'는 합성어,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의 의미로 쓰이는 단일어, '암/탕'은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암-'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7. 정답 1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이 글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고 시작한 후,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다시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으므로 결국 인문학이 하는 역할 혹은

기능을 말 하는 글이다.

8. 정답 4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자료에 나타난 인터넷의 다양한 순기능을 참고한다면 인터넷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글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9. 정답 4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잠'을 깬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깊게 만든 상황이 되었을 뿐, 절망적 심정이 투영된 것은 아니다.

10. 정답 4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그림을 돌려 쓴 액자에 의해 같은 그림이라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듯이, 사람의 겉을 치장하는 옷차림이 어떤가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11. 정답 3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③ '-던'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문맥에 맞다.

<오답 해설>

① 간대요 → 간대요: '간다고 해요'의 준말 '간대요'.

② 잘하대 → 잘하데: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어미는 '-데'이다.



전선혜 교수의

국가직 9급 해설 - 처 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④ 크대요 → 크데요: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어미는 ‘-데’이다.

12. 정답 3번

<난이도> 중

<오답 해설>

① 도외시 하였기 → 도외시하였기: 명사 뒤에 ‘-하다’가 결합하여 용언을 이룰 때 ‘-하다’는 접사이므로 붙여 쓴다.

② 대리전으로 밖에는 → 대리전으로밖에는: ‘밖에는’이 ‘그것 말고는’의 의미로 쓰이며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르면 조사이다.

④ 회복될 지 → 회복될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지’만 띄어 쓰고,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는지’는 붙여 쓴다.

13. 정답 2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② ‘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다’의 의미를 갖는 ‘한하다’는 문장에서 ‘-에 한하다’의 형태로 쓰이므로, ‘참가 신청자에 한하여 교부한다.’로 써야 한다.

14. 정답 2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핵심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지엽적인 것을 확대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으므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해 쓸 데 없는 것에 오히려 중점을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가장 어울리는 것은 ‘근본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부에만 사로잡힌다’는 의미의 본말전도(本末顛倒)이다.

<오답 해설>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수행하는 가운데 별안간 깨달음.

15. 정답 3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ㄹ의 접속어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에는 ‘태양’에 대한 내용이 오고 뒤에는 ‘밤’에 대한 내용이 와야 역접으로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ㄹ의 내용 뒤에는 그 결과 인류가 얻게 된 것(문명의 발달)이 소개되고, 그 대신(ㄴ) 잃게 된 것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다.

16. 정답 3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잘못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는 것이고, 리더십 부재에 해당하는 것은 길잡이가 혼자 가 버리는 것이다.

17. 정답 1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첫 번째 문단에서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를 소개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악기의 종류별로 어떤 소리를 비유하는지 설명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주 형태를 ‘앉은반’, ‘선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러나 사물놀이의 가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선헌 교수의

국가직 9급 해설 - 처 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18. 정답 3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글의 첫 문장에서 발화가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임을 밝혔다.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간접 발화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고 언급했으며,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청유문이나 의문문은 다 공손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는 언급은 없다.

19. 정답 3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차마설’은 글쓴이의 구체적 경험과 그것을 통한 깨달음을 일반화하여 적는 문학의 갈래로, 말을 빌려 탄 일상사와 관련하여 소유욕에 대해 경계할 것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어떤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은 아니다.

20. 정답 4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보기에서는 ‘진리와 정의’를 이야기 한 후에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의 특성도 그러하다는 서술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진리와 정의’에 ‘법과 제도’를 빗댄 것이다. 이것은 유추의 방식이다.

④번 역시 인생과 여행을 빗대어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였다.